

마가복음
Tape #C2523
By Chuck Smith

12 장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의 상황입니다. 이 날은 성전을 두번째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화요일에 예수님은 제지들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 (12:1).

이사야 5 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꿰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쩔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복을 돌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 5: 1-7)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농부들의 마음은 이사야서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림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이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2:2-9 절)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어주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맞고 돌팔매질 당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이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 여기에서 예수 님은 이전에 보내졌던 선지자들과는 능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들은 그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주에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사건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 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꼭 맺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과 기회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이방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편 118 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 편에는 메시야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이한 시편 118 편 의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인용된 구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상황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1-12) 고 담대히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돌을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돌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붓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단 2 : 34-35). 여기에서 돌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건축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았지만 결국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공법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에 쓰인 돌은 모두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뜨여져서 성전 공사장으로 운반되어 왔는데, 그 돌들이 너무나도 완전하게 계획된 디자인에 딱 맞게 뜨여졌기 때문에 그 돌들을 차곡차곡 쌓는데 모르타르가 전혀 필요없었다고 합니다. 돌 과 돌 사이에 먼도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 채석장은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에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 엄청난 크기로 잘려진 돌들 이 성전의 어디에 박혀야 하는지 표시가 된 채로 공사장으로 운반되어 차질없이 제자리에 박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채석장에서 뜨여진 돌 하나가 성전 공사장으 로 운반되어 왔는데, 인부들은 이 돌을 어디에 쌓아야 할지를 몰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들은 이 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 쪽에 치 워놓았다고 합니다 .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완공의 때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람들은 모퉁잇돌을 찾으려고 채석장에 갔는데 , 채석장에서는 이미 그 모퉁잇돌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런데 어떤 사람이 오래 전에 돌 하나를 쌓지 못하고 옆으로 치워두었는데 그 위에

뒹불이 나있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이 버려진 곳 으로 가서 뒹불에 덮혀 보이지 않던 그 돌을 파내 모퉁잇돌을 삼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실제로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었다 는 이야기 입니다 . 그러므로 시편 118 편은 이렇게 엄청난 예언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시편 118 편의 머릿돌 예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곧 그 머릿돌 , 즉 메시아 되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 . .” (12 : 13-14)

이들이 예수님을 참되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다음 질문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 책이였습니다 .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였습 니 다 .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 불가하니이까 ? 우리가 바치리이 까 , 말리이까 ? ” 유다는 로마의 한 주 (a promnce) 였습니다 . 로마의 한 주로서 유다의 총독은 로마정부가 직접 임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로마정부는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되 , 그들로 하여금 로마정부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

당시 로마정부가 부과한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 첫째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 이 세금은 그 땅에서 나는 소 산의 10 분지 1 을 로마정부에 바치는 것이였습니다 . 곡물은 10 분지 1 이었고 과일 은 5 분지 1 이였습니다 . 두번째로 소득의 5% 를 철저히 내야 했던 소득세가 있 었습니다 . 세번째로 유대인들은 단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1 년에 한 번씩 로마 정부에 1 테나리온을 내야 했습니다 . 따라서 살아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 물론 유대인들은 이런 세금 부과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 하였습니다 . 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께 한 질문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든지 간에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 니다 .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 는 것이 가하다”라고 대답한다면, 로마의 세금 제도에 아주 불만이 많았던 유대 인들이 예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만 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대답한다면 , 그들 은 즉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치안 방해 교사자로 고발하여 체포당하게 할 계획 이었기 때문입 니다 .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이 질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아마 이들은 이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 내느라고 꽤나 시간을 들였을 것입 니다 .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 여 나를 시험하느냐?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2:15).

테나리온 동전 하나는 유대인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 내야 했던 세금이였습니다 . 그리고 이 동전에는 로마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 니다 . 당시의 황제는 타이투스였는데 가이사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 예수께서 테나리온 동전을 갖고 다니시지 않고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신 것이 흥미롭습 니다 .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 가로되 가이사의 것 이니이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하나님의 것은 하나 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 (12:16- 17).

당시 현실적으로 이런 동전은 모두 가이사의 것, 즉 로마정부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동전들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것으로써 정부가 백성들에게 교환의 수단으로 빌려줘 사용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답변을 듣고 그저 기이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거의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틀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의 모든 종교 체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도, 천사의 존재도,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12: 18-19).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중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이 율법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씨가 대대로 이어지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남동생이 당신의 아내와 결혼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수와 결혼하여 첫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은 남동생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당신의 이름을 따르게 되며,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동생이 ‘저 여자가 내 형 한테 한것을 봐서라도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수없어. 절대 안돼!’ 하면서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는성문 앞으로가서 그들에게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남동생은 ‘제 형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싫습니다’ 하고 장로들에게 말한 후 신을 벗어 그 여자에게 건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당신의 남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신을 잃어버린 자” 라는 수치스런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이름은 아주 수치스럽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창세기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38 장). 이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경우로, 유다의 첫 아들이 ‘다말’ 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였는데 이도 역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켜야 하는데, 유다는 문득 겁이 났습니다. ‘첫째, 둘째도 죽었는데, 셋째까지도 죽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네 아버지의 집에서 수절하도록 해라’ 하고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에게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습니다. 다말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 몸을 뒤덮은 창녀로 변장을 하여, 양털을 깎기 위하여 팀나에 올라온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와 하룻밤 자는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보증으로 다말이 요구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일단 그 창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그 창녀에게 보냈는데 그 친구는 그 창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이에 다말은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 었으며, 이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즉시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끌어내었는데, 다말은 바로 그 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으면서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 이에 유다 는 자기의 것인 줄을 알고 , 자기가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말로 하여금 무사히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다말의 계보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위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인으로, 룻기의 여주인공 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이란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두 모압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기의 여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 즉 말론과 기론도 하나같이 이들을 낳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 외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불쌍한 여인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 때 두 모압인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를 듣고 그냥 모압에 남기로 하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라 ,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룻은, “나로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기 1:15-17) 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에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룻은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룻은 엘리멜렉의 형제였던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무를 자’로서의 의무를 맡기로 하고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으로 , 오벳의 아들은 이새요 , 이새의 이들은 다윗이었습니다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룻과 보아스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무를 자의 원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분명 한 것은 예수께서 오 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즉 우리의 기업무를 무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구속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특별한 유대법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만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 세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 최후 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때에 그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 ” (12 : 20-23)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정해서 말하여 ,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 사상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드러 내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즉 일곱 형제와 한 아내가 부활할 때 일곱 형제가 이 여자를 서로 자기 아내라고 우기며 싸우게 된다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 때 발생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의 대혼란을 미리 예상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당신이 신장 이식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

부활 때에 그 신장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그 몸을 묻게 되는데, 그 때 몸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식물들은 그 몸이 분해되어 생긴 화학물질을 섭취하여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소떼가 와서 그 풀을 뜯어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들은 그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화학물질을 섭취하여 자란 풀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주인이 그 소에게서 젖을 짜서 시중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체가 분해되어 나온 화학물질을 섭취하여 자란 풀을 소가 먹고 그 소가 만들어낸 우유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화학물질들은 어떤 몸을 입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현대인들이나, 죽은 일곱 형제 얘기로써 예수께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모두 같은 무지, 즉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2:24-26)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사두개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물론자들이었는데,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영원성’이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였지만 모세오경에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중시하던 바로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12:28)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예수께 정직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앞서의 두 가지 질문, 즉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 질문과,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한 질문은 부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직한 질문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구하는 것이지만, 부정직한 질문은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많은 정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정직한 질문인지 정직한 질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것이 부정직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오늘 밤 당장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분들을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 세례를 주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한 번 크게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 세례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당장 세례받지 않고 있다가 내일 죽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급상황 세례라는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유의 부정직한 질문을 받을 때, 결코 그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정말 이런

종류의 질문에서 야기되는 논쟁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 그 마음에 간절히 알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보여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거기서 중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기본적인 신앙에서 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뤄나가야 합니다. ‘저는 매우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13 일째가 되었을 때부터 예배당의자에서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10 대 청소년들처럼 저도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제 자신의 신앙적 기초와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저는 철학과 생물학 수업 등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이 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지조차도 의심하였습니다. 무신론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상상력으로 조작해 낸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두 주간을 이러한 갈등 속에서 괴롭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쉽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주위의 세계를, 즉 제가 존재해 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일까?’ 로 시작하여, ‘사람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기억할수 있게 된 것일까?’ 로해서, ‘무작위의 우연 (random-blind chance) 한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질문 들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좋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고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창조물과 나 자신을 관찰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 입니다.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찰해 보면 그 속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연 속의 미묘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산소와 질소의 순환을 보게 됩니다. 지구상의 물이 땅의 3 분지 1 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것들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계획을 두고 계신다면 저에게도 계획을 두고 계실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을 두고 계신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본문에서 예수께 나아온 율법학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첫째 계명을,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12:29)

예수님은 신명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는 ‘쉐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손목에 차던 작은 상자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당시에 유대인은 성전이 있는 산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곤 하였습니다. 이 작은 상자속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넣고 다녔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유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이는 ‘집합적 단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야키드’인데, 이는 ‘절대적 단일체’를 의미합니다.

저는 손가락이 다섯개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손입니다. 손은 손가락 다섯개가 집합적으로 하나를 이룬 것이므로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집합적 단일체’에 대한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입니다. 이것이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우리 주님도 ‘에하드’, 곧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여호와와 증인에 속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선약성경에서는 ‘야웨’를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평상시에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그 이름을 크게 중요시하지만, 신약의 기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여호와’나 ‘야웨’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신약의 기자들은 ‘주’에 해당되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일반적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 2:9에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즉 ‘퀴리오스’, 구약의 ‘야웨’나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와 증인들이 씨름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중에서 누가 참되신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 가던 중 두번째로 물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회교와 불교를 연구하였으며,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초기에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게 드러내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계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길로 빠졌던 과거의 모든 종교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같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려서 오늘날에는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옛 종교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초기에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계시를 오늘날까지 지속시키지 못한 신이 었다면 그 신은 이미 죽은 신으로 판결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최근의 신흥 종교들을 거부 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아 사람들을 새로운 빛과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다가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오늘날에 갑자기 현대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신이라면 이 신도 절대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성경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들과는 완전히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들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들이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들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한 존재 이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되며,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 : 8) 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가치있는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가면서 성경의 예언적 측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를 선언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미래의 일을 말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내가 실로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런 예언적 측면을 볼 때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아주 실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아랍 국가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엄연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럽 통합이라든가, 요즘 가게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화된 현금 출납 등록기 등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선언하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12:30).

두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식적·인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신이 삶의 중심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축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고 있는 그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축은 ‘자기 자신’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은 허무와 좌절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전도서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전형적인 예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 슬프게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원 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 자신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그의 모든 삶이 가치없는 ‘실수’ 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없으며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하여 이유도 없이 우연히 사라지는 삶이란 얼마나 공허하고 헛되니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두번째 계명은 첫번째 것과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구약 의 모든 계명들의 축소판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균형잡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균형잡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직업적인 상담자를 찾아가서, “나는 왜 반발을 잘할까, 나는 왜 소리를 지를까, 나는 왜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까지 몰아가일까, 나는 왜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애써 파악한 후에,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상담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뒤죽박죽된 내면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지만, 한 가지를 충고 하여 그대로 따르게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내면 생활은 또 다시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 내면 생활의 균형을 잡으려 한다면 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중심축이 흔들리면 중심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이웃을 우리 자신 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율법학자 (서기관) 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확증하기 위하여 재차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잡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왕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과 주로 모시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두 왕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다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 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한 율법학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라고 권위있게 선언해 주셨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는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12:35)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어린 아이들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여러 곳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삼하 7 : 16)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야가 태어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되어 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말하기를 ---”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윗을 감동시켜 이 말을 기록하게 한 분이 성령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 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시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가정의 통치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 자체가 법이었습니다. 그에게 89 살된 아들이 있다 해도,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고 물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은 “랍비님, 랍비님” 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오늘날 “박사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 ” 이들은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뒤로 숙여 먹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뜨거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자리를 말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고, 예수님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숙여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주관과 입장이 분명했으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에 신경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두뇌’에 관한 공부에 매료되어 도서관을 뒤지며 온갖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에 대하여 일종의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실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많은 위선을 보았는데, 이것이 저로 하여금 목사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였으며, 나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안됩니다. 무슨 말 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들 중의 한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고 싶지 않으며 항상 정장만 하고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항상 넥타이를 매고 다니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운동을 즐겨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매우 평범 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나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망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온갖 속임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에 매우 혐오감을 가졌으며, 이 문제가 저에게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주님, 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 주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연보কে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কে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12 : 41)

우리는 예수님이 전에 사람들의 자선을 베푸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 6 : 2-4).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 대단한 자선가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자들이 거드름을 피면서 많은 돈을 연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연보함에 한고드란트에 해당하는 두 렵돈을 넣었습니다. 저도 이 동전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1 페니로 렵돈 100 개는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동전 두 개를 연보함에 넣은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2 : 42-43).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얼마나 하였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얼마나 우리를 희생한 것 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이 헌금은 나를 얼마만큼 희생한 것인가?” 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드릴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존경하는 다윗왕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장소로 자기의 땅을 쓰고자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땅과 번제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그냥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삼하 24 : 24) 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허무와 좌절만을 주는 저 아랫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히 권면합니다. 참 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 들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의도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